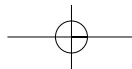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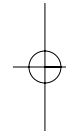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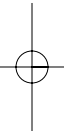


총체적인 성을 위한 모음글



총체적인 성을 위한 모음글

차 / 례 /

생식력 자각으로의 초대	4
내 몸은 지구촌의 몸	6
금욕과 성숙의 관계	8
하느님이 부른 아이들	10
생활 방식과 서약	12
자아를 확립한 인간됨	14
결혼 - 헌신의 서약	16
냉정한 계약	18
태아로 오신 예수님	20
성교육은 생명 교육	22

생식력 자각으로의 초대



배마리진 수녀

한국틴스타 대표 / 착한목자수녀회 소속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 온 성교육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아 온 것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 몸에 대한 것이 아닐까? 왜 성교육에서 생식생리를 가르치는 것일까? 생식생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생식력 자각이 몸이 지닌 그리스도의 모상성을 깨닫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믿음과, 또 그러한 몸은 성이 지닌 이성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면과 분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식력(fertility)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생명의 창조 안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러한 능력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생식력이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까? 월경이 단순히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정이 단순히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느 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에서 점액관찰로 생식력을 자각하게 하는 방법을 십대 학생들이 피임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생식력 자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지닌 생식력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 소녀들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그들이 현재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면들과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틴스타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녀와 소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점액만을 관찰하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질문과 답을 나누고 난 뒤, 쉬는 시간에 어느 여성 참가자가 다음



과 같은 체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의 신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결혼 뒤 아이들을 낳으려고 한의사를 찾아갔더니 점액관찰을 권해서, 오랫동안 점액 관찰을 해오다가 아이들을 낳았다고 한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였지만 오랫동안 그 방법을 쓰다 보니 남편이 어느새 자신의 몸의 질서에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자신의 배란일까지도 알아맞힐 정도였다고 한다. 그분은 자신의 생식력을 자각한 소녀는 절대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해 주셨다.

생식력 자각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출산조절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이면서도 나를 넘어서는 내 안에 거룩한 하느님의 모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인 것이다. 인류와 나이를 불문하고 부모가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초대는 제공되어야 하며 전해져야 된다고 본다.

출산조절을 위해 난관결찰 시술을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 틴스타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남편에게 자연가족계획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신비로움을 나누려고 했다. 그때 남편이 “당신은 그런 것 필요 없잖아?” 하더라. 그때 그 부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자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질서를 확인 받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인공피임에 습관이 든 남편은 아내의 몸과 마음의 질서를 무시할 수 있다.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인공피임과 참고 인내하며 대화하고 부인의 생식력을 온전히 존중하는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같을 수가 없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목적은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은 다르며 그 과정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지 실천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가족계획방법은 부부간의 상호협조와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생식력에 대한 자각 없이는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식력이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거룩하고도 존엄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생식력을 인공피임의 폐해에 맡겨버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당사자다. ☹

내 몸은 지구촌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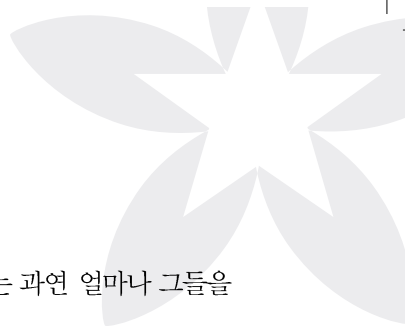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 내 친구 중 한 명의 부모님은 여인숙을 운영하셨다. 어느 날 그 집에 놀러가서 나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마루에서 어떤 여인이 아주 슬픈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방에서 나온 아저씨가 돈을 건네자 받더니 가방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돈을 준 아저씨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마당 한 가운데에 있는 우물물을 퍼서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 친구에게 그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자들이 부르면 돈을 받고 잠을 자러 오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조금 더 커서 그들이 성을 사고 팔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다.

이제 중년이 된 나는 그때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목격한다. 드라마, 오락프로, 영화, 음악과 뮤직비디오, 광고, 성인의 날 행사, 키스알바 등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내는 성적 세력은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려고 유도한다. 아름다운 말과 현란한 몸짓으로 성을 이용해서 음료수도 팔고 침대도 팔고 차도 팔고 아파트도 판다. 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시선을 가장 잘 끌고 유혹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 여름 에이즈 환자와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해 수녀회에서 파견된 수녀님들을 지원하려고 중국 남부 지역의 도시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렀다. 밤 시간을 이용해서 수녀원 뒤편의 거리로 들어가 보았다. 낮에는 평범한 여염집으로 보였던 집들에서 붉은 불빛이 흘러나왔고 거리로 나와서 뜨개질을 하거나 냇이 나간 눈빛으로 밤 손님을 기다리는 여인들은 성을 팔고 살아가는 여성들이라고 함께 간 수녀님이 말해 주었다.

그 곳 수녀원에서 본 미국 시사 잡지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이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 보균자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고



했다. 우리의 사명이 그곳까지 달려가게 하였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잘 알려진 사진작가가 아프리카에서 찍어 온 사진 중에는 아주 인상 깊은 한 아이의 얼굴이 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서 HIV에 수직 감염된 아이다.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으면서 웃어 보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그 아이의 두 눈 밑은 눈물이 이슬처럼 가득 맺혀 있었다. 그 아이가 사회를 보는 시선은 무엇이였을까? 그 아이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걸까?

지금 내가 가진 돈을 지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성이 혹시 미래의 무고한 나의 아이와 이웃을 성인성 질환의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정보나 상품이 아름답고 기록해야 할 인간의 성을 가치 하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겠다. 인간의 몸의 가치를 도구화 하거나 수단화 하는 행동에 대한 개선과 시선의 회복이 없는 한 지구상에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그러한 피해는 당사자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마치 성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듯 잘못된 성의 결과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원치 않은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것이다.

우리는 현대의 거대한 성적인 문화 안에서 성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성적 주체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 안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내 몸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지구촌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인적인 결단을 내려야겠다.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라는 이론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로 쓰인다.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나에게 혹은 상대와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하며 성적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야겠다.

나의 몸에 담겨 있는 성은 나 자신이면서 나 자신을 넘어서는 거룩한 실존임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폭력도 침투할 수 없도록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

금욕과 성숙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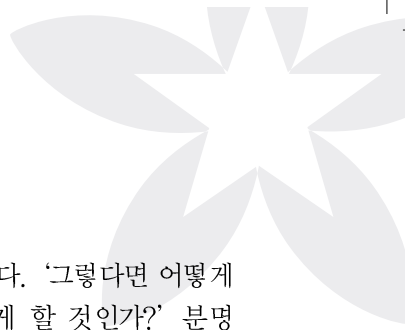


금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억지로 참아야 하는 어떤 것, 중세기의 어둡고 캄캄한 수도원의 검은 장막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미혼자와 독신자, 그리고 부부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금욕 안에 담겨 있는 가치는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성숙하지 않다면 금욕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성숙한 사람 이야말로 금욕생활을 강박관념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성적인 결합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 커지게 된다. 동시에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요소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이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성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면서, 또 이러한 욕망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식별과 판단을 요청받게 된다. 이때 우리는 매우 이성적이며 영성적인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내리는가에 따라 우리의 성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결혼생활로 응답을 하고 어떤 이는 독신의 삶으로, 또 어떤 이는 수도자의 길이나 성직의 길로 응답한다.

금욕은 성숙하기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통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령 우리가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통제하는 것을 배웠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걷거나 말할 때 우리는 수많은 근육을 제어하는 것을 배웠기에 지금 걷기도, 말하기도, 또 뛰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통제에 대한 훈련과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욕 발동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욕을 왜 억제해야 하는데요?' 라는



반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욕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능동적인 통제와 강박으로 인한 억제는 다른 의미다. 능동적인 통제란 강박이 없고 자유로운 선택 하에 내리는 결단과 행동을 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 호르몬의 변화와 생리적인 발달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되어 갈 때 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성숙을 향한 과업인 것이다.

오래 전에 신문지상에서 남한으로 전향하지 않은 고령의 장기수가 풀려나 북으로 가면서 고백한 내용을 담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고 한다. 이 장기수의 고백처럼, 미혼자에게도,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또 독신 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성욕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보다 성숙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다. 결국 사랑이란 관계를 맺는 능력의 발달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사랑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기에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기 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미혼자들이 결혼하기까지 금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가족과 물질을 모두 버리고 가난과 정결, 순명을 서원한 수도자와 성직자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자신을 쓰고자 응답하며 금욕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의의 사고나 질병 앞에서, 임신과 출산 앞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 기혼자들은 자발적으로 금욕을 선택한다. 이는 억제가 아니라 봉헌이며 성적인 성숙에 내포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어 놓겠다는 헌신의 응답이다.

성적 욕구를 이기심, 자기의 욕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성적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일은 총체적인 인간 성숙으로의 초대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 응답은 미혼자, 기혼자, 수도자 그 어떠한 형태의 삶 안에서도 성장을 위한 과제이다. 이 과제는 늘 위기가 따르지만 우리가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는 성숙으로 한 걸음 더욱 나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

하느님이 부른 아이들



태아(Fetus)의 라틴어 어원은 작은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태아도 생명이며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해마다 수많은 태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죄명으로 지구촌 전역에서 죽어간다. 그들은 딸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많거나 형편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나쁘거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밖에 어떤 이유로도 살해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살아남는 태아들이 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와 실낱같은 목숨을 이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저 생명의 힘과 신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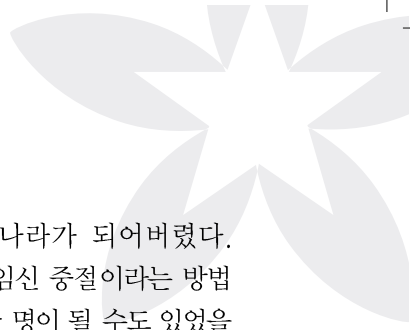
그들은 어떤 삶의 목적과 희망으로 살아지는 것일까?

얼마 전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수녀원의 한 수녀님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그 수녀님은 우연히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한국의 착한목자수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에 관한 글이라서 유심히 보았고 그 내용을 내게 보내신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18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신생아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한 개인병원에서 임신 8개월의 산모에게 인공 중절 수술을 시도하다가 산모는 죽고 태아는 살아 있다는 연락을 수녀원에 알렸고, 수녀님들은 죽음의 기로에 있는 신생아를 급히 가톨릭 병원으로 옮겨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아기는 처음에 큰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심한 폐혈증과 폐렴으로 위급한 상태였지만 신속하게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좋아졌다. 당시 한국에 국제학회 일로 나와 있던 의사 윌키 부부의 소개로 미국의 빅토 부부가 입양해 아기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의 아름다운 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을 목표로 국가가 가족계획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면서 약 40년 가까이 인공피임과 낙태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마침내는 높은 저출산율과 노령화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수많은 태아들이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 갔다. 아마 그 아이도 그 중의 한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달 수녀원 일로 중국에 가서 만난 수녀님 한 분이 중국에서도 많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계획의 실패로, 혹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작년에는 장 파열이 되어서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신생아를 데려다가 비밀리에 수술을 시켜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몰라보게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다고 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보여 주고자 하신 바는 무엇일까? 그들을 생명으로 부르고 계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그들은, 하느님이 부른 아이들로서, 또 다른 생명의 전달자로서 삶과 죽음이 하느님의 신비 안에 있다는 소식을 이 땅의 살아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난하고, 나약하고, 혈벗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은 갓난아이의 모습이였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이 어머니 마리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의 응답과 잉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아무리 부서지고 미숙하고 장애가 있는, 혹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무죄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일에 결코 공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살기 21항)는 말처럼 그곳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낙태의 유혹과 위협에 놓여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과 어린 생명들을 위해 메리 오르트 와인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 본다.

“주님, 장차 어머니가 될 모든 여성들을 오늘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피소서. 그들이 자신의 태내에 잉태한 특별한 보물을 인식하도록 그들을 도우소서. 문제 있는 임신 때문에 낙태의 유혹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가슴을 어루만지소서.” 무염시태 때에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당신 어머니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 시어 그들이 당신 법을 따르고자 하는 분별 있고 사랑스런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소서. 아멘. ☩

생활 방식과 서약



수도성소나 사제성소의 감소가 교회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가정의 해체가 교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출발점인 가정교회의 붕괴가 이혼과 성소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약 생활에 대한 시선과 태도의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혼인과 성직 혹은 수도생활의 서약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녀온 각자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가운데 특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서도 반복되는 좋지 않은 생활습관은 내가 서약한 헌신적인 관계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관계와 정서, 그리고 영성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습관이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개 줄까’ ‘친생 버릇은 입을 봐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행동이든 습관이 될 수 있으며, 습관은 강화와 반복을 통해 발전한다고 한다.

지나친 알코올의 섭취와 그에 동반되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하는 많은 가정을 본다. 파괴되는 가족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방임되거나 희생되며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 도박이나 카드 사용과 소비에 대한 습관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자매와 마땅히 나눠야 할 사랑의 실천에는 크게 미흡한데도 지나치게 관념적인 사색과 독서에만 몰입하는 수도자도 있다. 과식과 편식, 지나친 청결, 운동 중독과 건강강박 등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좋지 않은 습관이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혹이 아주 서서히 부드럽고도 매혹적으로 찾아오듯이 좋지 않은 습관도 아주 서서히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소진시키며 우리의 힘과 자유를 휘방하면서 잠식하여 들어온다. 결국 아주 사소했던 습관이 마침내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은 사람의 행복마저도 빼앗게 되는 것이다.

행복을 지향하며 가족계획을 하고자 했던 부부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인공피임에 습관이 들면 배우자의 몸과 마음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피임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폐해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행복하고자 했던 원래의 뜻과는 달리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자위행위에 습관이 든 사람은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는 혼인의 약속을 잊고 부부생활 안에서 홀로 사랑하는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 인터넷의 음란물이나 게임에 빠져든 이는 즐겁고 쉬운 방법을 선택 하면서 힘들지 않는 방법으로 욕망을 해소하려는 습관에 젖어 들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독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으로 신체와 정서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약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서약은 계약이 아니다. 서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며 일정기간이 아닌 영원히 유효한 공약이며 하느님께서 보증하신 성사다. 이러한 성사의 삶으로 초대된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두려고 가족계획에 타협하고 습관에 젖어들면서 어떻게 성소의 증가를 꿈꾸겠는가? 어떻게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겠다는 것인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사랑이 생활방식을 포함하고 넘어서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 그 시대의 문화, 생활양식, 습관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생활방식과 습관으로 서약생활을 하고 있다. 사랑이 이러한 습관과 생활방식을 넘어서도록 초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질칠 뿐입니다.” ☞

자아를 확립한 인간됨



얼마 전에 친구와 명동 거리를 건다가 입회 전에 많이 갔던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백화점 카드로 물건을 많이 구입했던 때가 문득 생각났다. 내가 수녀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카드빚으로 고생 좀 했겠지? 하고 그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때는 왜 그랬냐고 물어왔다. ‘자아확립을 못해서지 뭐’ 하고 말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알고 보면 생활방식과 자존감은 많은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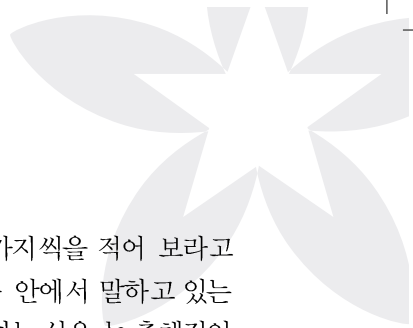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충고나 쓴소리 혹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 사람의 자존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고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잘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근본적인 갈망은 무엇인가? 사랑받음으로써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 방영된 오프라 윈플리의 토크쇼에서는 평소 식습관에 문제가 있던 뚱뚱한 한 여성이 위절개술을 받은 뒤 살을 빼서 아주 날씬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면서 심리적인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고 증언했다.

자아를 확립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자아가 확립되었다고 하는 말은 자존감이 높다는 말과 상관관계가 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신감이 있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에 만족해하고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말과 평가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자아 확립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선생님의 칭찬으로 주로 생기며 사명으로 더욱 확고해진다.

틴스타 수업 시간에 청소년에게 자신의 주위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을 쓰고 그들에게 있어 모범이 될 만한 덕목 세 가지씩을 적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청소년이 적어 낸 덕목은 놀랍게도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진복팔단의 덕목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행복으로 초대하는 삶은 늘 총체적인 인간 완성을 지향하기 위한 의지를 포함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한 것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의미를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며 기쁨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행복은 ‘충만함’으로 영혼 안에 깊이 내제되어 있는 ‘깊은 평화’라고 했다. 결국 행복이란 이미 내 안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다.

마테를링크의 동화 <파랑새>에서 행복의 상징으로 나오는 ‘파랑새’는 ‘추억의 나라’에도 ‘미래의 나라’에도 ‘밤의 궁전’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발견했어도 검게 변하거나 빨강게 변했고 혹은 금방 죽어버렸다. 그러나 주인공 티틸과 미틸이 그렇게 헤매어 찾던 파랑새는 잠에서 깨어난 현재 자신의 집 안에 있었다. 그것을 잡으려 하면 날아간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방황했던 경험이 있다. 문화 안에서 성차로 인한 차별이라든가 피부색깔, 얼굴 생김새, 키, 몸무게 및 성적 등으로 평가 받았던 경험이 있다. 부모님, 선생님 혹은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현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당당한 자신의 신원과 몸에 대한 태도를 보자.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하느님의 사랑의 흘러넘침에서 온 생명이라는 몸에 대한 시선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가 하느님께 예속된 인간이라는 신원 의식은 나를 현세의 어떤 판단에서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랑에서 왔으며 나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자아가 확립되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더 확실하게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격려하는 말 한마디, 생명으로 서로의 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결혼 - 헌신의 서약



왜 결혼 하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결혼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것처럼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결혼식 자체가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혼생활의 시작과 함께 부부는 사랑을 배우며 성장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2007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한국 갤럽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46.3%로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53.7%로 나왔다. 현대의 결혼 풍속도는 예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거로 결혼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성교육 현장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을 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양육비나 교육비의 지출, 취업난, 배움의 증가에 따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증가 때문에, 번거로운 혼사준비와 관계에 구속받기 싫어서, 결혼할 적절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부모의 영향이나 이혼의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예식에 참여한 하객에게 '다시 결혼해도 지금의 아내나 남편과 결혼하실 분은?' 하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 것일까?

결혼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일생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부부에게 가족의 갑작스런 사고,

원치 않는 질병, 경제적인 파산, 친인척과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수 있고 결혼의 서약을 깨뜨리고 싶은 유혹의 순간도 올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가 서약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사랑'이다. 사랑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의 순간을 넘어설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사랑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 같지만 사실 그렇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든 배우자의 부족함을 감싸주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든 사랑이라 한다. 자신을 내어 놓는 사랑에서 얻는 기쁨과 힘이 헌신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 말한다.

잘 나가던 남편이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었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남편을 간호하는 부인은 남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측은하고 기여운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한다. 집대문화로 회사에서 술자리를 자주 해야 하는 남편이 유혹으로 빠져들 수 있는 순간에 부인과 자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슬기롭게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 한다.

결혼한 부부는 날마다 함께 했던 서약을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사랑의 투신을 하도록 불리움 받는다. 부부가 맞게 되는 어려운 시간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대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순간 부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현대의 다양한 결혼풍속도 안에서조차 변치 않는 결혼의 의미는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선물로 받게 되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며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과 생명은 '부부사랑'이라는 가정에서 왔을 때 가장 온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지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결혼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알았다면 더욱 고민하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 모르고 내린 것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서약이라는 것을 헌신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수많은 성가정이 말해 주고 있다. 성가정은 이 사회에 건강한 혼인과 건강한 성소로 사람을 초대하는 사랑의 학교다. 사랑의 학교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힘, 재능과 시간, 정열과 생명을 함께 나눔으로써 어떠한 조건에서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

냉정한 계약



계약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요즘 결혼하는 부부 7쌍 가운데 한 쌍이 불임이다.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난자, 정자 매매가 성행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방송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였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불임 여성이 정자 기증자와 난자 기증자, 자궁 기증자의 도움으로 임신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시험관 대리모 시술 규모는 짐작하기 어려우며, 대리모 계약과 시술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 침해가 횡행한다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계약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일까? 계약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며 사물을 다루고, 상거래 관계에 속한다. 계약자 간의 물질적인 손해를 유발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일정 기간만 유효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전역에서 인간의 생명을 두고 장기매매, 성매매, 난자와 정자매매 등이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실물 거래되고 있다.

1986년 미국에서는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 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뒤 상대방에게 신생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주는 뉴욕의 한 불임 회관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대리모가 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처음 의도는 좋았다. 자신은 건강한 자궁이 있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있었으며 불임 부부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고 돈의 유혹도 있었다. 그래서 대리모 계약서에 동의했으나 막상 아기를 낳은 뒤 자신의 딸과 닮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몇 년 전 정관수술을 한 메리의 남편인 리차드 화이트헤드는 아내의 아이지만, 결코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큰 아이가 “내 동생을 돈 받고 팔 거야?”하고 물었을 때 메리는 놀라움과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베이비M 사건은 본인에게는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준 사건이었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사건 이후 그녀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인간의 감정이 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내가 만약 베이비 M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자.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난자를 제공한 사람인가 낳아 준 사람인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냉정한 계약으로 처리한 뒤에 생겨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사자인 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한때 사라질 수 있었던 수많은 인공 수정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거래와 계약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다.

인간의 생명은 상거래의 대상일 수 없으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필요할 때 준비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자녀는 온전한 선물로서 보내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소중한 선물이다. 생명이 여자의 힘만으로 혹은 남자의 힘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숨겨져 있다.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안다. 생명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랑과 생명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생명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야 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하기에 남성과 여성의 몸에 각각 생명의 가능성을 나누어 담아 놓은 것이다. 나의 출생이, 사랑의 결합에서 왔다는 것과 차갑고 어두운 시험관의 조작에서 왔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생명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 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생명을 인간의 소유적인 의미로 바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기원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생명 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리된 사랑과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생명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한 냉정한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더욱 하락 시키며 우리를 끝나지 않는 분쟁의 미궁으로 끌고 갈 것이다. ☹

태아로 오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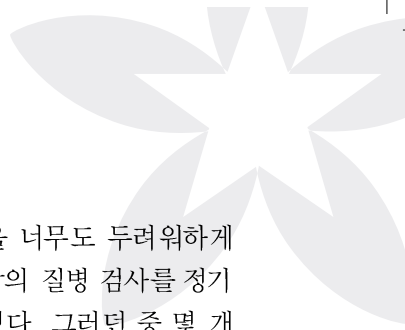


1996년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가톨릭대학교 박물관 입구에서 본 성가정상은 아주 인상 깊은 사실주의적인 작품이었다. 만삭의 몸에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성모님이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전신이 녹초가 된 모습으로 낙타 배에 기대어 눈을 반쯤 뜨고 계셨고, 성요셉도 만신이 피곤한 모습으로 그 옆에 쓰러져 계신 청동의 성가정상이었다. 아마도 여행길에 해산을 앞둔 모습인 듯했다.

사람들의 출생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사연에 따른 상황도 많이 다를 것이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나 원치 않는 임신처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운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은 부모에게 어떤 느낌일까?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야말로 전 존재를 흔들었을 처녀의 임신, 식민지 시민의 형편으로 긴 여행을 떠나 분만 했던 점, 그리고 누구보다 그 탄생을 두려워해서 죽이려 했던 힘과 권력. 지금의 우리나라면 어떠했을까? 그러한 생명을 받아들였을까? 예수의 부모는 생명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생명을 사랑으로 말이다. 바로 그 시점부터 구원의 계획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별일 없는 상황에서의 받아들임이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미국 콜로라도의 스티븐 저먼이라는 전기공은 사랑스런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일터에서 아내한테서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아내는 공포가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로 강간을 당했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간 저먼 씨는 아내가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낯모르는 흑인이 침범해 와서 금품을 털고 아내를 강간하고 떠난 것이다. 그때까지 정말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의 하나의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난 순간이다. 그 일을 당하고 부인은



우울증으로 아무 일도 못하였고 집에 홀로 있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불안감으로 부부생활도 못했고 에이즈나 그 밖의 질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무척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몇 개월 뒤 저먼 씨는 아내가 임신이 되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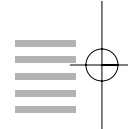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저먼 씨의 아내는 자신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자신이 돌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남편에게 말한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그 부부를 힘들게 한 결정이었을까? 그러나 저먼 씨는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함께 키워 보자고 말한다. 그들의 사랑스런 딸은 지금 여덟 살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딸로 크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적의 글을 남겼다.

‘벧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 제 아버지의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명체, 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생명체, 마치 창세 때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로운 생명체, 어머니의 벧속에서 꿈지락거리던 아기는,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게 해 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적으로 만든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들이 그 아기를 받아들인 것부터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이 놀라운 기적은 사랑이다.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힘으로 생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성가정상이 보여주는 메시지다. 한 사람의 탄생 안에는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한 생명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다. 나의 탄생이, 나의 현존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 그분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우리의 몸 안에 살아 있다. 성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맺어 온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발가 벗고 오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나약하고, 깨지기 쉽고, 보호받아야 할 모습을 상징한다.

마리아와 요셉이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 그러한 관계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육화를 통해 보여 주고 계시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또 다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구원사업에 동참하도록 요청 받고 있다. ☸



성교육은 생명 교육



성교육 시간에 만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성(性)’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물으면 대부분 부끄럽고 은밀하고 편하게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떠오른다고 한다. 우리의 성적 태도와 사고, 가치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명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성, 생명이 나에게 그냥 주어졌을까? 생명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까닭이 있다면 성도 나에게 선물이 되는 까닭이 있지 않을까?

자라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성교육을 알게 모르게 받아 왔다. 또 우리는 서로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갓난아기 때 부모의 사랑스런 보살핌에서 우리는 신뢰를 배웠고 청소년 시기에 동료 친구에게서 얻은 거짓된 정보나 성지식으로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학교 공교육 시간에는 주요 과목에 밀려, 일찍 끝난 학기 말 빈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강당에서 비디오 한편을 보며 성이 지닌 위험성과 신비를 다 알게 된 듯한 과정도 보냈다. 지금도 많은 성교육 현장에서는 일회성 성교육이 주류를 이루며 인공피임식 혹은 성역할이나 성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으로 성교육의 의무를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양한 성교육의 내용과 형태들 안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의 성적 사고와 태도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는 힘’과 ‘아빠가 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생식력, 곧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터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 어느 날 깨어나니 어른이 된 것은 아닐 텐데, 나의 성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도대체 성이란 무엇인가?

여기 중년의 한 여인이 있다. 열여덟 살 때 동네의 한 남자를 사랑하여

임신을 하였다. 남자의 집에서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한 소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에서 창피해하면서 먼 친척집에 보냈다. 소녀는 이미 임신 8개월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남의 손에 아기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유산을 하고 아이를 친척집 마당에 묻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복수라도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죽은 아이를 파서 상자에 넣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의 남자 집까지 가지고 간 죽은 아이의 시체를 남자의 어머니 앞에서 열어 보여 기절하는 것을 본 뒤 그 길로 도망쳐 동두천으로 갔다.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 있는 가족과 친척집은 없었다. 소녀는 동두천의 기지촌에 일자리를 얻었다. 동두천의 생활은 힘들었고 그 와중에 교도소를 네 번이나 들락거렸다. 죄목은 폭행, 절도, 사기, 마약 등이다.

이 비극적인 한 여인의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이 지닌 다양성을 목격하게 된다. 열여덟 살 소녀의 신체적인 생식력은 엄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었지만 소녀는 과연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맺게 되는 성관계가 언제든지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부모나 가족 중 어느 누구라도 소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위로하고 받아들여 주었다라면 소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을죄를 지은 것이라는 관념이 그곳까지 몰고 간 것은 아닐까.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온전한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올바른 시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녀가 겪은 불행을 방임하였거나 도왔을 수 있다. 줄 수 있었던 올바른 성교육을 제때에 주지 않았으므로 말이다. 성이라는 문제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단면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의 핵심에는 늘 사랑과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종교적인 유산, 우리의 현 문화, 그리고 각 사람이 각기 다르게 겪게 되는 체험 안에서도 성이라는 주제는 생명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려고 할 때 성과 관련된 문제는 생겨난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생명교육이어야 한다. 부모는 일차적인 성교육자여야 하며 가정은 가장 좋은 성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성교육이란 사랑을 배우는 교육이며 생명을 사랑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



총체적인 성을 위한 모음글

발행일 : 2009년 8월 1일

발행인 : 배마리진 수녀

발행처 :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주소 :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519호

E-mail : kteenstar@hotmail.com

전화 : 02 755-2629

팩스 : 02 727-2243